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6월 21일(금)
..(음력 5월 19일)..

Пятница

21 июня 2019г.

№ 24(11684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22일은 현충 및 애도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예 광장>에서.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주정부 수상으로 알렉세이 벨리크 임명

2019년 6월 13일부로 알렉세이 벨리크가 사할린주 정부 수상으로 임명됐다. 사할린주 두마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인사 결정을 한 가운데 사할린주지사 대행 왈레리 리마렌코가 이에 서명했다.

알렉세이 벨리크는 쿠반 국립공과 대학 졸업, <금융 및 신용>전공의 경제 전문가이다. 러시아 연방 농산부 재무 및 회계처 예산 시행감독 제1과의 전문관으로 경력을 쌓았고 <극동 인적자본개발>공사 기획 시행 책임자 등으로 활동했다. 2016년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부시장, 지역 경제 개발부 장관, 사할린주 정부 부 권한 대행으로 활동했다.

사할린 주지사 선거, 출마 후보 신청등록

사할린주의 주지사 선거가 9월 8일로 날짜가 정해진 가운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 등록이 7월 1일까지 이어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후보 신청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무수속 출마 후보로 왈레리 리마렌코(현 주지사 대행), 스웨틀라나 이와노와, 예카제리나 톨마초와가 있다.

정당 소속 후보로는 알렉세이 코르니엔코(러시아연방 공산당), 드미트리 플레예르(러시아 자유민주당), 드미트리 젠킨(<공무니스트 러시아> 공산당), 드미트리 코체르긴(사회정의 공산당), 알렉산드르 아니스트라토브(<스프라웨들리와의 러시아>정의당) 등.

후보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10%의 지지표를 받고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얻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사할린주 정부 인사 개편

드미트리 찰로브는 사할린주의 조달계통 계약시스템 조정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됐다.

드미트리 찰로브는 1976년에 프리모리예변경 우수리스크에서 출생. 1998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극동공공서비스아카데미 <국가 및 지방 자치 관리>를 전공했다. 사할린주 주민사회보호관리국에서 근무를 했고 2016년에는 사할린주 조달계통의 계약시스템 조정부에서 최근까지 차관으로 활약했다.

사할린국립대, 신임 총장 대행 부임

사할린국립대학교 신임 총장 대행으로 바르민 니콜라이가 러시아 연방 교육부 장관령으로 부임했다. 그전에 임기가 끝난 올레그 표도로브 사할린국립대 총장 대행이 총장대행직을 사퇴 하고 부총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새 총장 권한 대행은 니즈니 뇨고로드 출신으로 사회학 박사이며 경제학 준박사다. 사할린국립대 총장 대행으로 임명되기 전에 14년간 니즈니 뇨고로드 교육개발연구소를 소장할 역임했다.

6월 22일은 러시아 현충 및 애도의 날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78년 전에 대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은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고, 끔찍한 파괴가 발생했으며 각 가정에는 고통과 비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할린의 주민들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지켜내고 더 많은 주민들은 후방에서는 근로에 힘쓰며 혼잡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공급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국민의 위대한 공적을 기억하고, 영웅 전사들을 존경하며, 참전용사들을 돌보고 전쟁 발발의 동기를 기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날은 그 누구도 잊지 않았으며, 그 무엇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

<사할린의 조명> 연극축제 개최

<사할린의 조명> 연극축제가 주 정부의 안톤 자이체브 부총재의 축하와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 안톤 체호브 국제극장센터에서 6월 13일(목)에 개막됐다.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사할린의 조명> 연극 축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적인 무대로 꾸며졌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4개국의 연극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세계 15개 극장으로부터 26개 연극이 극장 무대에서 선보였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소시오페스/햄릿'(노워시비르스크 <낮은 집>극장), <할머니>, <신데렐라> (모스크바 <실렘>극장), <나타샤의 꿈> (월고그라드 극장)이 상연된다.

연극 축제는 <문화> 민족기획의 일환으로 열리는 가운데 러시아(야쿠치야),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핀란

드, 중국의 작품이 외국어로 상연된다. 외국 작품은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진행된다. 극동 프로그램에는 사하공화국의 <뉴르빈스키> 연극진흥센터가 고골리의 명작 '외투' 상연, 이외에도 하바롭스크 극장, 콤소몰스크-나-아무레 극장이 참가한다.

카자흐스탄의 <알타이의 아티쇼크> 극장은 카자흐스탄의 민화를 토대로 한 실내오페라 '에르 토스틱' 상연.

세르비아의 <부크 스테파노비치 카라지치>문화센터는 결혼 80주년을 맞은 부부의 사랑과 그 본질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는 연극 '환상'을 상연.

중국의 난징시 연극단은 1959년 소련의 알렉산드르 볼로진이 쓴 유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5개의 야회'를 23일 18시에 체호브센터에서 상연.

사할린, 한국 비즈니스 미션 개최

지난 19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한국 비즈니스미션이 열렸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선으로 사할린에 4개 업체(제일산기, 코스탈, 상명테크, 예은축산) 대표들이 와서 현지 기업인들에게 한국 제품을 소개했다.

회사들이 소개하는 생산품 중에는 브리켓머신, 예코전기온돌, 육류가공품 및 반조리제품, 베이킹 등이다.

이날 사할린주경제개발부 알렉세이 우스펜스키 장관이 주내 개발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행사는 주경제개발부와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주최 아래 진행됐다.

새고려신문

2019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7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이하여 본사에 근무하셨던 대선배님들 몇 분이 축사와 함께 당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사건, 상황, 사실 등을 회상하셨다.

필자도 이 분들의 글을 보면서 몇 가지가 기억 났다.

편집부에서 일하셨던 김수만 상급 기자와 관련 이야기다.

1983년에 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종합대학교 언론학과에 입학하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입학시험을 꼭 봐야 했다. 그 해 합격선 점수도 높았고 경쟁률이 몹시 심했다. 0.5점이 모자라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언론학과에는 입학하지 못해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조건은 1주일 내에 취직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할린으로 돌아와 바로 <레닌의 길로>신문사에 취직을 하여 처음엔 잡일을 하고 나중에는 타자를 맡았다.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일하면서 동시에 공부를 했다.

언론학과에 입학했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장르의 기사를 쓰는 숙제가 있었다. 한글을 모르는 나는 당연히 기사를 러시아어로 썼고 신문사 기자분들이 내 글을 번역했다. 웬지 내 글을 김수만 선배님이 자주 번역해 주셨다.

한 번은 신문사에서는 육류유통공장의 지배인과 인터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일단 써왔다. 인터뷰는 김수만 선배님께서 번역하여 신문 2면에 실렸다.

그 당시 우리 식구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인터뷰가 게재된 날에 퇴근했더니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러시아말을 꽤 하셨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기사 중 너의 기사가 가장 재미있다. 진심이다. 거짓말이 아니야." 하시며 신문을 들고 계셨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 글을 유창하게 하시는 김수만 선생님이 인터뷰 내용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여기까지



▲ 2019년 2월 18일. 왼쪽으로 부터: 김수만 선배님(현 모스크바 거주), 석혜경 선생님(유즈노사할린스크 거주), 장세복 회계원, 필자, 안춘대 선생님(현 한국 김포 거주), 이에식 사진 기자다.

을 잘 살리셔서 기사가 생생했던 것 같다. 또 하나의 기억도 김수만 선배님과 관련돼 있다. 한 번은 건설현장에 가서 30대 건설노동전문가를 취재한 적이 있었다. 이름이 기억에 남지 않는데 그분은 일을 성실히 하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었고, 아내가 러시아인이었다. 인물 소개 기사를 길게 썼다. 그 당시 신문사에는 15명 이상의 기자들이 일했었다. 신문은 일주일에 5번 발간되었고 기자들은 그날 발행호에 대해 매일 간단하게 회의를 하는 것 외에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2주에 한 번, 매월 한 번 기사분석 회의에 들어갔다. 돌아가면서 담당 기자가 분석 자료를 소개했는데 기자 모두가 논평에 들어가 우수 기사, 우수 기자, 별로 좋지

찬하셨다. 그때도 이 기사를 김수만 선배님께서 번역을 하셨다. 사실은 내가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김수만 선배님이 나에게 추가 질문도 하시면서 내용을 한글로 잘 전달해 써주셨다. 내가 기자로 성장하기까지 안춘대 사장님의 기여도 아주 많았다. 나에게 러시아어 면 담당을 시켰고 학생면도 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한국어로 기사를 쓰게 되는 것도 안춘대 사장님 덕분이다. 한국프레스센터 초청으로 CIS지역 젊은 동포 기자를 위한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으로 서울에서 6개월간 어학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연수를 마치고 사할린으로 돌아왔더니 안춘대 사장님이 나에게 "지금부터는 기사를 한국어로 써

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한국어로 첫 기사를 쓰는 게 너무나 어렵고 진땀이 났다... 이후 차츰차츰 번역도 하게 되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아마도 안춘대 선생님이 사장으로 계실 때 특히 90년대에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웠다. 당시 기자로 활약하시던 남자분들은 90년대 초기에 거의 다 그만두셨고 주공산당 위원회의 기관지에서 벗어나면서 신문사 운영이 아주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소련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운영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었다. 그래도 신문사 사원들의 잘못으로 신문이 70년간 한 번도 휴간한 적은 없다.

안춘대 선생님은 "우리 신문은 나쁜 날씨에 바다로 가는 작은 배"라는 표현을 좋아하신다. "신문 제작은 한편으로는 공장이다, 다른 편으로는 창작이다."란 또 하나의 말씀을 잘 기억한다. 매주 상품을 생산해야 하고 좋은 기사를 쓸 때는 재미있게 표현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신문사에 거의 50년 계셨던 석혜경 선생님께서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 석 선생님은 오랫동안 번역원으로 계셨다가 교정을 맡게 되셨는데 제 글을 더 잘 만들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다. 선생님 덕분에 표현력이 좀 늘어났다 싶다. 이렇게 대선배님들의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6월 7일에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열린 <새고려신문 70/우리들에 대하여> 전시회가 잘 구성되어 있어 사할린 동포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꼭 한 번 찾았으면 한다. 나는 이 전시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회상하고 같이 일했던 선배님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전시회는 6월 30일까지다. (배 워토리아)

이 모 저 모

사할린 주민들, 연금 수급자가 되기 전 새 직업을 무료로 배울 기회 제공

연금 수급자 연령의 사할린 주민들이 이제는 무료로 새 직업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기성세대>연방 기획의 지원으로 지역에서는 이미 155명이 재교육을 받고자 했다고 전해졌다.

홈스크 주민인 니나 바라노와가 그중 한 명이다. 그녀는 홈스크의 제빵공장에서 회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방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느 순간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했다. 공장의 사장은 그녀의 이러한 적극성을 응원하여 현재 니나 바라노와는 공급하는 전문직을 갖게 되었다. 이는 중요한 분야로서 따라서 제빵공장은 지속적으로 쿡쿠르와 매매 계약 체결에 참가하여 국가 기업들과 일하고 있다. 홈스크 주민인 니나는 연방 및 주 예산에서 후원하는 <기성세대>기획 덕에 재교육을 받았다.

이런 프로그램은 연금 수급 연령 전, 5년 미만인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사할린주에서는 이미 155명에게 재교육을 실시해 그중 4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연금 생활을 앞둔 사람들은 직접, 간접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을 익히고 있다. 새로운 직업을 얻거나 또는 지니고 있는 자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직업교육 과정은 사할린 주내에서만 진행하며 기간은 3개월 미만이다.

교육 시 무직자들에게는 지역 비율에 비례하는 최저 임금 정도의 장학금을 받을 권리도 주어진다.

올 연말까지 50여 명이 유사 교육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Сахалинцы перед пенсией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профессию
Нов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теперь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лу-

ч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граждане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при помощ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 регионе уже 155 человек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ереобучение.

Одна из них — Нина Баранова из Холмска.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она работает бухгалтером на Холмском хлебокомбинате и имеет большой опыт в этой сфере, но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захотела овладеть новой профессией. Директор поддержал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и теперь Нина Баранова еще и специалист по закупкам. Это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так как хлебокомбинат постоянно участвует в конкурсах, тендерах, работает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Обучение холмчанка прошла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который финансируетс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й программой могут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м до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осталось менее пяти л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155 человек проходят переобучение, из них 48 —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Предпенсионеры очно или заочно осваивают т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которые востребованы на рынке труд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профессию или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уже имеющейся квалификации. Курсы проходят тольк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 не более трех месяцев.

Те, кто в момент обучения нигде не работает, имеют право на выплату стипендии в размере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увеличенной на район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До конца года подобные курсы закончат еще порядка 50 человек.

사할린주 도서관, 청년의 날 기념 공연에 초대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이 6월 29일 청년의 날 기념 공연에 주민들을 초대한다.

<너의 도시>무용팀(지도 체 알렉세이), <모들라치아>극단 무용팀, GS댄스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최고의 실력을 갖춘 뮤지컬팀의 공연이 주민들을 기다린다고 도서관 측이 전했다.

공연은 18시에 시작이며 입장은 무료다. 문의 전화 8 (4242) 452-528.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глашает гостей на концерт ко Дню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29 июня приглашает гостей на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молодежи.

Зрителей ждут выступления танцевальной студии "Твой город"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лексея Че, эстрадной театр-студии "Модуляция", студии танца GS, а также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эстрадных вокалист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чало концерта в 18.0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452-528,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사할린주 전승 75주년 기념으로 주내 모든 산 정상 정복

2020년에 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을 맞는다. 현재 사할린주는 이미 5월 9일 전승일과 9월 3일 일본 군으로부터의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의 날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사할린 주 두 마 의원들은 여행사 지도자인 세르게이 바실렌코와 <아드레날린> 사회단체의 대표인 니나 카소와와 공동으로 사할린주 관광청의 후원 아래 2019년 2020년에 <승리의 정상>이라는 활동을 거침없이 펼치기로 했다. 이 활동은 사할린주 18개 지방자치 지역에 있는 최고봉에 올라 승리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이다.

각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날에 주민들이 등반하는 자체 산 정상이 있다. 6월 12일 러시아의 날에는 주 중심의 주민들이 로시스카야산에 등반하고 우글레고르스크 주민들은 세르게예브스카야산에 오른다. <승리의 정상> 활동은 올 6월 15일부터 토마리 지역에 있는 크라스노와산 등반부터 시작해 내년 9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각 지역의 최고봉이 정해졌다. 산 정상들의 높이는 차이가 많다.

주내에 가장 높은 산은 세웨로쿠릴스크 구역의 아클라스와섬에 위치한 화산 알라이드 (2239m)이고 오하 구역의 가장 높은 산은 삼 형제산 (해발 623m)이다. (8면에 계속)

문예콩쿨 최우수상

한국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으면...

안복자

(24호의 계속)

음악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추억에서, 열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었다. 소녀인 나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며 그들의 향수, 슬픔, 고국에 그들 없이 늙어가는 부모들, 고향에 두고 떠난 젊은 아내들을 향한 그들의 갈망을 느꼈다. 그 당시 나는 그들의 고향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고향, 논밭, 바다, 산들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어린 시절은 그 멜로디와 슬픈 노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 했지만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들이 내 앞에서 멜로디와 리듬을 지키며 삶과 서정성과 사랑으로 가득 찬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고려인들의 일반적인 감정을 느꼈고, 마음으로 그들의 노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때는 전기가 없어도 어른들이 약한 촛불이 빛나는 방에서 겨울의 길고 추운 밤까지 부르던 노래가 많았다. 그 가버이 펠리는 촛불이 바람을 많이 맞고, 햇볕에 그을리고, 영감을 받아 노래하는 그들의 얼굴들을 비추면서 석회로 바른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떨어졌다. 다른 명절은 반년이나 지나야 다가오기 때문에 깊은 밤까지 계속 노래를 부른 후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처럼 서로를 보듬으며 헤어졌다.

특히 나는 70년대에 모든 고려인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부산이다. 젊으셨던 아버지는 그 항구에서 부모, 누나, 여동생, 남동생, 아내와 헤어져 일본의 강제 징용으로 떠나면 사할린으로 이끌려 오셨다. 여기서 아버지는 나중에 두 번째 아내를 만나셨고 사할린에서 두 번째 고국을 가지며 다섯 명의 딸들을 슬하에 두셨다.

50년 동안이나 우리 가족은 부모님의 고향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몰랐다. 아버지의 부모님이신 조부모님은 장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고 80년대까지 큰 아들에 위한 제사를 지내셨다고 하고 아버지의 첫 아내는 고향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한다. 아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지자 조부모님은 며느리에게 "이 집을 떠나 네 삶을 살아가라."는 말을 하셨다고 한다.

요즘 나는 종종 이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가 내 아버지에 대한 노래라는 생각이 든다. 노래 끝소절처럼 아버지는 대전쟁 후, 처음으로 적십자의 도움으로 1991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누나와 동생들과 만나셨다. 동생들은 형을 많은 친척, 마을 사람, 어린 시절의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거기서 그들은 한국 노래도 부르고 유명한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불렀다.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가고파 목이 매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해매이던 긴긴 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쳐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우리 아버지는 어려움, 고난, 절망적인 삶에 대한 투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셨으며 92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는 일본인들 밑에서 수천의 고려인들과 같이 광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셨다.

악한 일본인들은 사람이 배고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상관 없이 일을 시켰다. 나는 항상 배가 고팠었던 포로들의 삶에 관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사할린 강에 산란기가 올 때 연어가 강으로 진입해 들어오면 일꾼들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곤했다. 그 다음에 어떤 용기에 불을 붙여 갓 잡은 물고기를 삶아 먹었다. 생선이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 보였다. 배고픈 사람들은 허기를 달래며 손과 입을 떼면서 소금 없이 뜨겁고 싱거운 생선을 딱 먹었다. 나는 또 다른 추억이 떠오른다. 겨울철 저녁에는 아버지가 집에서 키우는 돼지에게 먹이려고 큰 통에다가 병동된 잔 감자를 삶아 마루에 놓아 식히면 나는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뜨겁고 달콤한 감자를 통에서 집어 내어 껍질을 벗겨 맛있게 먹었다. 아버지는

진정 굶주림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에 언제나 밥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깨끗하게 드셨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 후에 성석회를 삼으로 내리는 일을 하시면서 무수히 먼지를 많이 마셨다. 그 결과로 결핵과 위궤양 질병을 얻었고 신장 기능이 멈췄다. 의사들은 아버지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예견했으나 아버지는 병원 병실의 모든 같은 환자 중 혼자만 살아 남으셨다. 그때 아버지에게 무엇이 병을 이길 만한 도움이 되었는지? 죽음에서 우리 아버지를 구한 것이 무엇인지? 죽어가는 폐로 아버지는 거의 숨을 쉬실 수 없었다. 의식을 잃으시면서 아버지는 배꼽은 다섯 딸과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서 기다린다는 것, 가정에서 자신이 혼자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을까, 아버지는 살고자 결심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이겨내시고는 우리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다. 나는 그때 아주 어려서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고,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우편으로 집에 전달되었던 흰색 배경에 꽃이 그려져 있는 단순한 카드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 카드는 우리 아버지가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으시며 보낸 카드였다. 나는 나중에 많이 성장해서 아버지가 가난하고 외로웠던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당시 우리는 정말로 너무 힘들게 살았으며 이웃들로부터 돈을 자주 빌려 살았다. 이후 아버지는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어도 일하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얼마 동안 경비원으로도 일을 하셨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비효율자,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무 행정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여겼다. 이러한 인덕으로 아버지는 철도에서 평범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하셨다. 책임감있는 태도, 직업에 대한 열망으로 아버지는 존경을 받았으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책임자가 되셨다. 우리 딸들은 저녁에 아버지하고 작업표를 작성하는 데 도와 드리며 아버지와 함께 철도에서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 노어로 읽지 못하시고 피곤해서 거의 잠 들어 계신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철도 수리 규칙을 되풀이하시고, 발음하기 어려운 말들은 우리를 따라 하시면서 죽자사자 외우셨다. 이런 모든 일이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시킨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래 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아직도 부모님과 동포인 이웃들이 함께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를 진심으로 불렀던 그때를 기억한다. 그 노래는 지금도 자주 내 기억 속에 떠오른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 노래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한국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도 있다.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엄청나게 밤낮으로 많은 시간을 책과 볼펜을 들고 보냈다. 그래서 지금은 노래 전체 가사도 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르거나 녹음한 것도 못 들어봤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아마도 거의 잊어 버렸고, 청소년들은 아마 모를 거라 본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억 속에 이 노래가 자주 들린다. 나는 심지어 가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직하고, 근면하고, 겸손하고, 친절함 성품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또한, 내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생길 때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했던 사람이었는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지를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의 존함은 이 강근이었는데, 그 뜻은 강함, 튼튼함, 단단함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삶이 어려워도 태어났을 때 받았던 이름에 부합한 아름다운 행동과 태도로 살아오셨다. 또한 나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힘들어도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몇 년 동안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교사로 일했고, 지금도 러시아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다. 나는 수업시간에 그들에게 때때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러시아에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의 전도사라고 믿고 있다. 교실에서 내 앞에 앉아 있는 동포들,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우크라이나인 등 열광적인 아이들의 귀여운 얼굴들을 보며 내가 사랑하는 일들이 러시아와 한국 간의 우호 관계와 의사소통 강화에 관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내가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수업시간에도 노랫소리가 들린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들을 수 있다. 나는 힘과 기대를 주는 한국 노랫소리가 계속 들리기를 원한다. (끝)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첫사랑/박남철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안에서 늘 새침하던
어떻게든 사귀고 싶었던
포항여고 그 계집애
어느 날 누이동생이
그저 철없는 표정으로
내 일기장 속에서도 늘 새침하던
계집애의 심각한 편지를
가져 왔다

그날 밤 달은 뜨고
그 탱자나무 울타리 옆 빈터
그 빈터엔 정말 계집애가
교복 차림으로 검은 운동화로
작은 그림자를 뚫고 여우처럼
꿈처럼 서 있었다 나를
허연 달빛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얻어맞았다
그 탱자나무 울타리 옆 빈터
그 빈터에서 정말 계집애는
죽도록 얻어맞았다 처음엔
눈만 동그랗게 뜨면서 나중에
눈물도 안 흘리고 왜
때리는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달빛 아래서 죽도록
얻어맞았다

그날 밤 달은 지고
그 또 다른 허연 분노가
먼도칼로 책상 모서리를
나를 함부로 꺾으면서
나는 왜 나인가
나는 왜 나인가
나는 자꾸 책상 모서리를
눈물을 흘리며 책상 모서리를
꺾어댔다

"문제작가의 문제작이라니. 거친 사람이라면 딱 질색입니다만, 이 시는 이상하리만치 매력적입니다. 시인은 꼭 이 시처럼 살다가 죽어 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이 시를 읊기는 중일 테고, 우리 인간의 내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종종 궁금하다가도 이런 시를 접하면서 논리를 뛰어 넘은 광기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미친 건데, 아주 제대로 돈 건데,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종종 이 시가 마련한 순간 속을 서성이는 편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참 알다가도 모를 인간의 '마음'입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2019.06.19.

스웨덴, 노르웨이 입양동포 가족 한국어 집중캠프 개최

스웨덴, 노르웨이로 입양되었던 동포들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과 재스웨덴한국학교(이사장 신미성) 및 노르웨이한글학교(교장 김진경)가 공동으로 현지에서 한국어 집중캠프를 개최한다.

스웨덴지역 캠프에는 6월 15-16일 입양동포 18가족 40여명이 참여하며, 노르웨이지역 캠프에는 6월 21-23일 입양동포 7가족 20여명이 참여한다. 본 캠프는 입양동포 가족들에게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초수업을 시행하며 한식 만들기, 전통 공예품 만들기, 전통 놀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 현지캠프는 7월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에서 입양동포 30명과 그들의 자녀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입양된 후 한국과 관계가 단절됐던 입양동포와 그 자녀들이 한국 문화와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현지와 한국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입양동포들은 8월 9-1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재외동포재단 주최 모국 초청캠프(2019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Тел. 43-59-80, 43-67-85.

Конкурс эссе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зер конкурса эссе (лауреат премии 2-й степени).

Цой Викторья (Цой Ок Сун), родилась в 1966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кончила школу № 13, в 1988 году закончила Новосибирский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нженер-экономист».

Работает специалистом по таможенному оформлению, имеет двух дочерей.



Дорога к бабушке

Дорога первая.

Как мы жили раньше без сотовых телефонов? В детстве, чтобы навестить бабушку, сначала нужно было сесть на автобус. Поднимаешься в салон по железным ребристым ступенькам и сразу идешь к кассе. 6 копеек со звоном проваливаются в узкую пластмассовую щель, крутишь колесико, отрываешь билет. Серая бумага, красная рамка, черные цифры. Складываешь первые три и последние три цифры, и, если сумма совпадает - это счастливый билет! Нужно загадать желание и съесть серую, плохо жуящуюся бумажку.

По дороге к бабушке нужно купить хлеб. Заходишь в полутемную булочную, вдыхаешь запах сдобы, подходишь к прилавку и говоришь продавщице: "Две булки черного". Немного стыдно. В школе учили, что хлеб - наше богатство. И уж конечно толстая продавщица в белом халате знает, что корейцы не едят хлеб, что я покупаю его для свиней, которые живут в маленьком сарайчике в углу бабушкиного огорода. Я слегка нервничаю, протягивая монетки. Продавщица небрежно кидает их в кассу и выдает две коричневые буханки с черной корочкой и хрустящими уголками.

Вот и улица Проточная, бабушкин дом в самом конце. Иду мимо деревянных одноэтажных домов, мимо заборов, за которыми лениво лают собаки, под ногами в сухую погоду клубится пыль, в дождливые дни улица расползается блестящими скользкими комками грязи. На ходу откусываю хрустящий краешек хлеба, так идти веселее. За заборами видны цветы, кусты сирени, в глубине аккуратные грядки и теплицы. Подхожу к бабушкиному дому, бочком прохожу мимо конуры с собакой на цепи, вхожу в маленький тамбур, снимаю сандалии. Вижу стоптанные галоши, резиновые сапоги, на верхней полке аккуратно стоят дедушкины ботинки.

Захожу, бабушка улыбается мне, кивает на печку - покушай. Побыв немного, помыв посуду, я собираюсь домой. Впереди снова длинная пыльная улица и поездка на автобусе. Бабушка сует мне деньги в карман, я для вида отнекиваюсь, но бегу домой довольная, рубль - большие деньги!

Дорога вторая.

Я прилетела домой на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Сразу после самолета мы едем к бабушке с дедушкой. Садимся в купленный недавно Москвич-412, гордый папа ловко крутит руль. Дорога пролетает быстро, за автомобилем клубится пыль, куры разбегаются по сторонам, редкие прохожие отступают на обочину. Подъезжаем к знакомому забору, собака яростно лает - этот пес меня не знает. Старый тамбур, прихожая, запах бабушкиного дома - пар от риса, аромат соевой пасты, вареной свинины и немного от дыма от печки.

Забегая в дом, здороваюсь. Бабушка с улыбкой смотрит на меня, в новом платье, с модной стрижкой, что-то по-корейски говорит маме, обе смеются. Накрываем на стол, привычная еда - каша, суп. После институтской столовки так вкусно! Убираю посуду со стола. Ставлю таз в большую железную раковину, кипячу воду в чайнике, разбавляю ковшиком холодной воды.

- Мам, а резиновые перчатки есть?

Мама смеется:

- Конечно нет! Мой посуду без перчаток, а то бабушка будет ругаться.

Дорога третья.

В Инчхоне тепло. Вдоль тротуаров тянутся кус-

ты с ярко-красными цветами, обочины дорог выложены крупным камнем, сквозь щели пробивается зеленая трава. Греет яркое солнце.

Мама собирает сумку: коробка "Птичьего молока", привезенная мною из России, кефир, фрукты.

Садимся на автобус, за стеклом - заграничная жизнь, чистые улицы, блестящие автомобили, черноволосые дети с ранцами бегут в школу. Выходим из автобуса, поднимаемся на пригорок, я вижу здание из стекла, много зелени. Здесь пансионат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теперь бабушка живет здесь.

Входим. В комнате стоит несколько коек, на каждой лежат старики. От их потерянных взглядов сжимается сердце. Я ишу взглядом бабушку - вот она, спит, рот открыт, тяжело дышит, коричневые руки лежат вдоль тела.

- Мам, вставай - говорит моя мама. - Просыпайся, смотри кто приехал.

Бабушка медленно открывает глаза, смотрит в потолок. Потом переводит взгляд на меня, на маму. Выражение ее глаз какое-то время не меняется, но потом в глазах загорается искорка и она говорит: "А, Ика приехала".

Я обхватываю ее за спину, помогаю подняться. Она садится на кровать, неожиданно маленькая в голубой пижаме, седые волосы коротко острижены. Беру ее за руку. Кожа тонкая, словно бумага, маленькие руки, трудившиеся всю жизнь, совсем слабые теперь. Она улыбается мне. Я знаю, что она всегда хотела уехать в Корею. Здесь ее родина. Но дома у нее нет. На сердце тяжело.

Дорога четвертая.

Я снова в Инчхоне. Мама складывает в сумку бутылку водки, конфеты, фрукты, какие-то закуски. Мы едем к морю. За окном такси мелькают высокие дома, вровень с нами летят ухоженные вылизанные машины, цветы на бордюрах сливаются в красно-зеленую полосу. Выходим к пирсу. Серые волны бьются о бетон, свежий ветер дует в лицо. Над этим морем год назад развеяли прах бабушки, как она хотела. Здравствуй, бабушка. Вот я и приехала.

Слезы стоят в глазах. Вспоминаю ее на старых фотографиях - маленькую, рядом с высоченным красавцем дедушкой, глядящую в камеру с несмелой улыбкой, в окружении пятерых детей, среди них - моя мама.

Дорога пятая.

Однажды мастера дзен спросили: "Куда уходят наши родители? Неужели смерть забирает их навсегда?"

Он ответил: "Они живут в вас, в каждой клеточке вашего тела - и родители, и бабушки, и дедушки".

- Но это ничем не доказано, - засомневались журналисты.

- Вы не слыхали о генах? - улыбнулся он. - Это научный факт. Поверьте, они живут внутри вас - ваши предки, вы - их продолжение.

Держу на коленях внучку, целую кудряшки за затылке, смотрю, как она водит маленьким пальчиком по книжке. Мы громко читаем: "А как лошадка говорит? - Игого! А как коровка? му-уу!"

Бабушка, я знаю, что ты сейчас со мной рассказываешь своей пра-правнучке сказку, твои руки тоже гладят ее по голове, у тебя тоже тепло на сердце, когда ты видишь как она играет и смеется. Со мной ты радуешься жизни, со мной горюешь в трудные дни, у нас впереди длинная дорога и мы с тобой еще многое увидим.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497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Главы МИД РК и США обсуд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визит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 Сеул

Глав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РК Кан Гён Хва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 Россию провела 15-минутные телефонные переговоры с госсекретарём США Майклом Помпео.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предстоящий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 Сеул и текущую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изит главы Белого дома намечен на конец июня. Министры двух стран подчеркнули важность данного события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укреплением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остижением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его окончатель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ей. Вместе с этим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инцидент с нападением на нефтяной танкер в Оманском заливе и выразили намерение о продолжении тес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острове Уллындо появится аэропорт

К 2025 году на острове Уллындо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аэропорт. По сообщения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17 июня началась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роверка проекта.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в апре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овый аэропорт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в юж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в бухте Садонхан. Он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небольшие самолёты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50 пассажир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ропорта на острове Уллынд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начать ещё в 2013 году, однако в связи с рисками повышен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сходов компании отказались от участия в тендере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яло ряд мер по исправлению ситу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увеличив бюджет проекта до 560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имерная стоимость авиабилета от острова Уллындо до Сеула составит порядка 85 долларов, а сам путь будет занимать один час.

Доступ к portalу Naver в Китае внезапно восстановлен

С 14 июня доступ к крупнейш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ам в Китае был заблокирован. Однако вскоре Пекин частично снял ограничения. Начиная с 17 июня, доступ к некоторым функциям интернет-портала Naver,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поиска, просмотра новостей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ловаря восстановлен. Аналитики связывают причину блокировки корейских сайтов с 30-й годовщиной событий на площади Тяньаньмэнь. Доступ к другому portalу Daum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лностью ограничен. Аналитики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доступ к Naver стал возможен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работ на китайских серверах или из-за критики относительно чрезмерного контроля за интернет пространством. Помимо этого, Пекин заблокировал сайты Wikipedia и иностранных СМИ - Washington Post, Guardian и NBC.

Корейские профсоюзы указали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нятия мер в связи со старением общест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их профсоюзов Ким Чжу Ён сделал заявлени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дле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РК. Данную позицию он озвучил в ходе интервью в минувший четверг в Женеве, где состоялось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По его словам, РК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станет "супер-старейшим обществом", поэтому такие меры как повышение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необходимы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старения. К примеру, в Японии планируют повысить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до 70 лет. Между тем, решения подобного рода являются непростыми как д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к и для мес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труда. Высокий пенсионный возраст продлевает срок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старелых граждан и в то же время создаёт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Вместе с этим Ким Чжу Ён сообщил о намерениях обратиться к президенту РК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а о ратификации основных конвенци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а.

В июле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анимационных фильмов SICAF

В июле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крупнейший в Аз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анимационных фильмов - Seoul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SICAF), который входит в число пяти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в мире профи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период с 15 по 21 июля мэрия Сеула, помимо этого фестиваля, намерена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маркетингу контента - Seoul Promotion Plan и Сеуль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индустрии воображения Seoul International Imagination Industry Forum (Si3). Между тем, 23-й по счёту фестиваль анимационных фильмов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17 по 21 июля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KOEX. Его тема - «Инновационные изменения».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ится показ 103 анимационных фильмов из 28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показ 3D фильма «Red Shoes». В рамках крупнейшей в Азии платформы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вижения анимационных контента Seoul Promotion Plan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бизнес встречи, а также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обмену последними тенденциями. (RKI)

Бизнес-мисс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представила на Сахалине медные шины, мясные бульоны и утеплители полов

19 июн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нял у себя в гостях делегацию из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посетил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 бизнес-миссией. В деловую часть программы вошли выступления с презентациями от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т первой стороны интерес проявили порядка 80 участников, от второй заявили шесть компаний.

Мероприятие открыл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он рассказал об опыте и программах,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сахалинской экономике накоплено порядка 15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Они вкладываются в такие виды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транспорт, оптовая торговля и др. Глав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гео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особы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то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и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ны три ТОР: "Горный воздух", которая делает упор 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Южная" с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ью развития и "Курилы" со специализацией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1 июня 2019 года статус резидента по всем ТОРам получили 30 компаний-инвесторов.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авит от 50 млрд рублей, будет создано около 30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ет максим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инвесторам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инициати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и для этих целей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было создано агентство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Его специалисты оказывают бизнесу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е услуги, готовы подобрать площадк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предлагают варианты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которым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Агентство сопровождае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от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и составлении бизнес-плана до начала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Поддержкой со стороны вла-

стей 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как российские, так и иностранные компании. Помимо тех преференций (ТОРы и порт), инвесторы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как на финансовую, так и на не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Именно об этих преференциях подробно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Антон Шередекин. Он отметил, что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может получить статус приоритетного и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о дает ряд преимущест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остальным бизнесом.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налоговые преференции.

Старший менеджер компании Jeil Machinery Co., Ltd. Ян Джу Хон рассказал о брикетировочных машинах, которые они проектируют и изготавливают. Это машинное устройство для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 твердое состояние порошка (например, угольного), который не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 экономно. Товар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Иране, Китае, Катаре и др. Менеджер отметил, что машинами холодного брикетирования могут похвастаться многие страны, а горячего, печи которых работают при температуре от 700 градусов по Цельсию, только три: Франция, Герман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У компании также имеется сво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где проводится тестирова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Costal Corporation, созданная в апреле 1999 года, занимается изготовлением медных шин, заземлителей, аккумуляторов, трансформаторов, втулок и др. Компания имеет порядка 70 единиц наименований создаваем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ее директор Хван Бён Сон. По желанию заказчика некотор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также может быть подвержено процессу гальванопокрытия.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я министр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обозначил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области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Costal Corporation.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компании SamMyung Tech (SMT) Им Джу Хи презентовала электр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отопления полов "Эко-Ондол". Стержень оборудования из нержавеющей стали защищен

от влаги, что делает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безопасной и прочной. Изделие экспортируется с 2000 года в различные страны мира.

Компания Yeunfood LPC производит мясные продукты и стремится выйти на сахалинский рынок, экспортируя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Она готова расширить ассортимент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до готовых к употреблению мясных продуктов или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из мяса, если это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сахалинским компаниям.

В рамках бизнес-миссии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российские строит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Александр Швайка, директор завода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мени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 А. Федотова, не раз посещал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Конечно, это надо изучать, это все интересно, куда люди идут, куда мир движется, любое знание не бывает бесполезным. Как-то Корея дала нам пищу для размышлений по поводу технолог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асфальта. У нас весь мир хранит его в бункер-накопителях, а Корея ушла от этого. Они сказали, что он портится в процессе хранения. У них главное отражение на технологии укладки, чтобы асфальт высушался в том количестве, которое можно уложить. Когда был в Японии, понял для себя, что у нас упущение в том, что мы перестали заниматься научны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именно по дорогам, сбором ста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поиском причин. На таких конференциях можно услышать подобное, и они позволяют переосмыслить подход к существующим проблемам.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состоялись встречи в формате B2B.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рпораци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который был подписан на площадк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сентябре 2016 год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данной бизнес-миссии являются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ИА «Сахком»

В КНДР подчёркивают важность визита Си Цзиньпина в Пхеньян

К приезду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а в КНДР 20 июн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подготовила спецвыпуск,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нынешний визит «напишет новую страницу в истории двух стран». Издание разместило в выпуске целый ряд статей, посвящённых Си Цзиньпину, придавая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его первому визиту в Пхеньян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В передовой стать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визит Си Цзиньпина в КНДР в условиях наличия множества сложных задач, обусловленных непростым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тношениями, является показателем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важной китайские власти считают дружбу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КНДР указывают на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нынешнего визита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в таких сложных условиях, как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ая торговая война и протесты в Гонконге и другие.

(KBS World)

РК отправит в КНДР 50 тыс. рис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ешил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К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в виде риса через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б этом 19 июня в ходе брифинга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Ким Ён Чхоль. По его словам, учитывая отрицательну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ситуацию в КНДР, решено выделить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ООН (WFP) 50 тыс. тонн риса в помощь Северу на сумму в 108 млн долларов. Пхеньян подтвердил готовность принять эту помощь. Всемир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ООН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доставку гуманитарного груза и его распределение. На мешках с рисом будет надпись «대한민국», что в переводе означает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ис планируется упакова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ый срок хранения не превышал полугода. Это дел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вероят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иса для нужд армии. Весь процесс передачи груз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до сентября нынешнего года. (KBS World)

На фестивале «Сахалинская рампа» покажут спектакли 15 театров из 5 стран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стоялась 13 июн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е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ени А. П. Чехова. С театр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от имени руководства региона зрителей поздр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Впервые за восемь лет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рампа» ст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За 18 фестивальных дней – с 13 по 30 июня – зрители увидят 26 спектаклей 15 театров мира. В программе – постановки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Сербии, Финляндии, Китая.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 Уверен, что мы получим массу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и зарядимся театральной энергией, – сказал Антон Зайцев. – Сахалинцы – большие поклонники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наших театрах всегда полные залы. Мы не остаемся в стороне от мировых тенденций в искусстве. На островной сцене ставят спектакли режиссеры из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едавно сахалинские театралы увидели череду «золотомасочных» постановок.

«Сахалинская рампа» открылась июньской премьерой Чехов-центра – «Тёркин». В завершении первого фестивального дня, несмотря на дождь,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Чехов-центром состоялись концерт сахалинской группы «Real Time» и фаер-шоу.

– Четвертая «Сахалинская рампа» станет рекордной п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и насыщенности. Мы, как организаторы, стараемся оставить все лучшее, что было ранее, и непременно добавить что-то новое,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Чехов-центра Татьяна Корнеева. – На фестивале мы проведем режиссерскую лабораторию. Любопытно, что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артисты двух театральных трупп – Чехов-центра и Хабаровского ТЮЗа. В общем, фестиваль готовит для зрителей множество сюрпризо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программу вошли, кроме Чехов-центра и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Хабаровский ТЮЗ, Комсомольский-на-Амуре театр драмы и Нюрбин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из Якутии. Программа «Знакомые незнакомцы» представит другие постановки режиссеров, которые работали также и в Чехов-центре. Для юных театралов приготовили детские спектакли.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ахалинской рампы» будет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й. Зрители увидят нашумевшие российские спектакли: «Sociopath/Гамлет» (театр «Старый дом», Новосибирск), «Бабушки» и «Золушка» (театр «Практика», Москва), «Наташина мечта» (Вологодский ТЮЗ).

Театр ARTиШок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покажет камерную оперу «Ер-Тостик» по народной сказке. Центр культуры «Вук Стефанович Караджич» (Белград, Сербия) сыграет «Иллюзии», где две женатые пары в свои 80 лет снова задают себе вопрос, что такое любовь и удалось ли им понять ее суть. Китайские артисты из Нанкинск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представят «Пять вечеров» по пьесе советского драматурга Александра Володина.

Фестивальной точкой станет «Просто киносемка» о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 Финляндии. Актеры из Хельсинки выйдут на сахалинскую сцену 30 июня в рамках Театра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которая приурочена к Году театра в Росс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изошли кадровые изменения

Дмитрий Чалов назначен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ы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работе в новой должности он приступит с начал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отметил,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будет связана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реформ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купках.

«Изменения начнутся с 1 июля. Наша задача – эффективно выстроить работу с заказчиками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решать все сопутствующие сложности», – сказал Дмитрий Чалов.

Дмитрий Викторович Чалов родился в 1976 году в городе Уссурийск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1998 году окончил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академ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 муницип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 этом же году начал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департамент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насел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последствии работал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где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и от глав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до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одного из профильных департаментов.

В 2016 году Дмитрий Чалов перешел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ы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до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рабо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 директор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ы.

Женат, воспитывает двух детей.

Заявки на конкурс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2019» принимаются до конца этой недел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рассказать о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оступках земляков.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адресу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gordost_2019@mail.ru. Проект организов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агентством «Sakh.com».

Основная идея конкурса – отметить жителей, которыми стоит гордиться. Например, это могут быть подвиги по долгу службы, решение об усыновлении детей, волонтер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мощь в спасении людей или животных.

Также жители островов могут рассказать о многолетних или приемных семьях, о пенсионерах, ведущих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о школьниках и студентах, реализующих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о сахалинцах, которые, став успешными и узнаваемыми, прославили область своим талантом, достижением, необычным поступком.

Всего в проекте заявлено 6 номинаций: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Доброволец»,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Выдающийся родитель», «Юный гражданин»,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Заявки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ают по всем номинациям. К примеру, на звание «Выдающегося родителя» претендует Татьяна Ковач.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мама дочери со сложным генетическим заболеванием ста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необычной фотовыставки «Как все». Экспозиция рассказывает истории родителей, воспитывающих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лугода выставка передвигалась п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и культур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области.

В этой же номинации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подал Дмитрий Димов. Он стал инициатором введения в детском саду №43 «Светлячо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граммы правового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через игровые формы.

Педагоги с помощью рисования, лепки, коллективных бесед, игр и сказок разъясняют детям права, которые закреплены Конвенцией о правах ребенка.

А в номинации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представлен выдающийся писатель, этнограф и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Владимир Санги. Обладатель яркого нивх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лова, автор более 50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нивхского алфавита, букваря и учебников по родному языку, правил нивхской орфографии, а также нескольких проектов по возрождению культуры и духовност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За звание известного островитянина поборется и Дмитрий Третьяков, директор ОГАУ «Центр техниче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Дмитрий Третьяков создал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которая за восемь лет доказала, что инициатива обычного жителя может принести пользу огромному количеству людей.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проводит одноименный фестиваль авиации и музыки, который в 2016 году был признан самым массовым событие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 временем из «Крыльев Сахалина» выросл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реждение «Центр техниче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Напомним, конкурс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2019» проводится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с 30 мая по 21 июня принимаются заявки конкурсантов. Далее комиссия, состоящая из экспертов-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и журналистов, проведет отбор кандидатов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них состоится на сайте [Sakh.com](https://sakh.com) (<https://sakh.com/>) с 1 по 22 июля.

Более 200 обращений поступило за две недели работы на портал Сахалин.онлайн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на брифинге двух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а Сидоренко и Вячеслава Аленков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года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заняться формированием новой культуры работы с жителям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Один из так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 сервис «Сахалин.онлайн», запуск которого был объявлен 29 мая.

Проект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сбора и оперативного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талкиваются в своем доме, во дворе или на улице. Он позволяет любому человеку сообщить о проблеме в удобном онлайн-формате. Уже сейчас в «Сахалин.онлайн» есть 85 тематических разделов в 11 категориях, в частности: ЖКХ, дворы, дороги,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образование, занятость, пожар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так далее.

Система работает во всех 18-ти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страцию на ней прошли более 7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поступающих от жителей, кроме региональной власт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муниципальные и городск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Введен контроль качества работы исполнителей, которые осуществляют отработку проблем.

– С 29 мая по 11 июня н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ступило 215 сообщений, из которых 80 уже решены положительно, – сообщ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мы обнаружи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тладить механизм и качество работы отдельных звеньев, в частности, некоторых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Есть ряд запросов по теме мусора, поэтому в понедельник мы привлекли в «Сахалин.онлайн»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Теперь такие заявки обрабатываются более оперативно. Также решили добавить в бли-

жайшую неделю отдельную новую тематику на сайте по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м свалка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ервис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назначен один из финалист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Лидеры России» Артем Российченко, который уже имеет опыт ведения подобного проекта. По его словам, больше всего обращений сахалинцев касается некачественного ремонта дорог.

– Сюда присылают как оперативные ситуации –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профилирование грунтовых дорог – такие проблемы мы решаем сразу. Есть долгосрочные дорожные темы –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проездов, дороги между населенными пунктами – по таким сообщениям мы информируем заявителя о сроках и условиях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 рассказал Артем Российченко.

Второ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место занимают темы, касающиеся работы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Например, после обращения на портал одну из коммунальных проблем, которая не решалась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удалось урегулировать всего за 5 дней.

Информация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незаконная парковка или объявления на фасадах домов) занимает третье место по числу сообщений на сервисе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 10 таким случаям инициирован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дела.

Как уточн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сайте планируют ввести новые разделы: рейтинг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инициативы граждан и карту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бласти.

– Перед нами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выполнять поручения жителей. Но для этого пользователям сайта необходимо давать нам своевременную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Призываю всех сахалинце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Чем активнее вы будете заявлять о проблемах, тем эффективнее будет контроль за ними, – сказал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Ссылка на сайт: <https://сахалин.онлайн>.

Ссылки на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ru.thewhite.golos3&showAllReviews=true>
<https://itunes.apple.com/ru/app/сахалин-онлайн/id1324003560?mt=8>

Финалист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значен на должность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ец Виталий Шаронов с 8 июля займет пост ведущего советника департамента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талий Шаронов родился 30 января 1995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16 году с отличием окончил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Физ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В августе 2017 года начал работать учителем физкультуры в школе №8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еред назначением в минспорт был инструктором-методистом в футбольном клубе «Сахалин».

Одновременно Виталий Шаронов учится на втором курсе магистратуры в СахГУ, профиль «Менеджмент в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Кроме того, он является воспитателем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мени заслуженного тренера РСФСР Э.М. Комнацкого. Финалист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новился победителем и призером соревнован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зональ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ровня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Автор ряда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в научных журналах и сборниках.

– Кадровый конкурс позволил проявить себя,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овыми людьми, набраться опыта работы именно в команде, получить ценные советы от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своего дела. Рад, что удастся принести пользу области, – поделился Виталий Шаронов.

Напомним, кадровый проект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щенны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водился с 18 февраля по 22 апреля. Желание стать частью «Команды» выразили более 1300 человек, большинство – уроженц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55 человек, 8 – уже получили назначени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 сахалинец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исполняет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рожен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тьяна Сачук возглавила отдел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Сергей Чернецкий из Корсакова стал начальником отдела техническ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основных фондов ГКУ «Управление Сахалинавтодор». А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рина Ведерникова исполняет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роме возможности занять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финалисты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гранты: первая десятка лидеров выиграла по 1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еще двое участников смогут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Сегодн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о второму конкурсу,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서울 삼각지 경천애인사 아동원 터 재미동포 故 김영옥 대령 선행을 담은 안내판 세워진다

재미동포 故 김영옥 대령, 한국전쟁 참전 당시 경천애인사 아동원의 전쟁 고아 500명 돌봄
용산구, 경천애인사 아동원 터를 역사문화명소로 선정하여 6.19(수) 안내판 제막식 시행



재미동포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이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 500명을 돌본 경천애인사(敬天愛人社,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 다길 17-5 現 삼각지성당 앞)에 표지석이 설치된다.

용산구 주최로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거행되는 제막식에는 당시 경천애인사에서 전쟁을 극복한 전쟁고아 출신 어르신 2명,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국방부 국방정신전력원 교육생 40명 등이 참석한다.

장시환 목사가 세운 경천애인사는 설립 초반에 경영난을 겪었으나, 유엔군으로 참전한 김영옥 소령(당



시)이 지휘하던 미(美) 육군 7사단 31연대 1대대의 적극적 후원으로 재정 안정을 기하면서 약 500명의 전쟁고아들을 돌봤다.

한우성 이사장은 "6·25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용산구가 경천애인사 터를 근·현대 역사문화명소로 선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재외동포들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대리 윤기호, 064-786-0243

※ 김영옥 대령(1919~2005)은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미(美) 육군장교로 활약, 한국·프랑스·이탈리아 3국으로부터 최고무공훈장을 받은 전설적 전쟁영웅이자, 일본군 '위안부'·가정폭력피해여성·고아·입양아·빈민·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인권운동가이다.



[우리말로 깨닫다]

나를 예쁘게 여기는 사람

'어옛비 여기다' 라는 말은 훈민정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왜 창제하였는지 설명하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어옛비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옛비'라는 말은 당시에는 불쌍하다, 가엽다 정도의 의미로 쓰였던 말입니다. 따라서 백성을 불쌍하고 가엽게 생각해서 한글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를 애민(愛民) 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요즘에는 '어옛브다'라는 말이 '예쁘다'로 바뀌었습니다. 뜻도 '불쌍하다'와는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예쁘다는 말은 '아름답다'와는 좀 다른 느낌의 단어입니다. 예쁘다의 느낌을 생각할 때 옛 의미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엽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가엽게 생각한다는 말은 보호하고 싶다, 돕고 싶다, 돌보고 싶다는 말과 통합니다. 보통 아기를 예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느낌 때문일 겁니다. 아기는 예쁘고, 그래서 돌봐주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 할머니들을 보면 아가에게 '아이고 아여워라!'라는 표현을 자주 하였습니다. 뭐가 가엽다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예쁘다'의 느낌을 알고 나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주로 하는 말씀인데, 아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빨리 뛰고 싶지만 할 수 없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모습이 재미있으면서도 안타깝기도 한 겁니다. 이런 감정을 지는 예쁘다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바라보고 있으면 좋으면서도 혹시 다치지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함께 들어있는 감정입니다.

저에게는 예쁘다는 말이 가슴 절절히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사별(死別)한 할머니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였는지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잠시 떠올리시더니 눈가가 젖어들면서 "나를 참 많이도 예뻐 하셨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과 행복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러웠습니다. 어여쁘게 생각했다는 것은 늘 아껴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늘 걱정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의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쁘다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예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떠올려 봅니다. 나를 예뻐하셨을 부모님이 생각이 나네요. 무슨 말로도 다할 수 없는 감정으로 벽차오릅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저를 예뻐하십니다. 자식은 늘 아기 같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자식은 늘 예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걱정이 되죠.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라는 말은 예쁜 말입니다.

내가 예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저도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이미 저보다 키도 더 크고 다 성장한 아이들이지만 여전히 예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 나누는 대화가 모두 예쁩니다.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아무 일 없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쁜 감정입니다. 그리고 예쁜 사람은 아무래도 같이 살아가는 아내이겠지요. 아가 할머니가 하셨던 말을 아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쁜 감정은 가족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벗에게도 예쁜 마음은 전해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예쁜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를 예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고, 행복하게 하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쁘게 살아야겠습니다. 예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마사회 인천연수지사, 사할린 동포 어르신 후원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사할린 동포 어르신 원예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정서안정 지원 위해 기부금 300만 원 전달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지사장 채창호)는 6월 14일 인천사할린 동포복지회관(관장 손정희)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의 정서안정을 위한 원예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는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어르신들의 정서안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가 전달한 기부금은 기관에 거주하는 초기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꽃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의 황혼'이라는 원예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해 어르신들의 심리안정, 인지기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예



상된다.

손정희 관장은 "동포 어르신들의 연세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번 마사회의 후원으로 큰 보탬이 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채창호 인천연수지사장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해 많은 고초를 겪으셨던 동포 어르신들이 노후에 고국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지

원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노인 복지증진사업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의 원예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 /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말산업저널]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박항서의 축구교실" 개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해 6월 20일 베트남 건너서에서 축구교실을 개최한다.

박항서 감독은 한-베 자녀들이 다수 거주하는 건너서시에 있는 '한-베 함께 돌봄 센터'를 방문, 한-베 자녀 50명과 현지 아동 50명 등 약 100명의 어린이들과 축구교실, 사인회, 동화책 읽어주기 등을 진행한다.

이번 축구교실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주최로 열린다. 한 이사장은 이를 통해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베트남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깊어지고, 한-베 자녀들이 지역 사회와 어우러져 잘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베 함께 돌봄 센터'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한-베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현대자동차, 베트남 건너서여성연맹 등과 협력해 2018년 1월 건너서시에 설립한 베트남 최초 한-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이다.

재외동포재단은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을 위해 동 센터를 중심으로 ▲무료 한글교실 운영 ▲도서·교육기자재 지원 사업을 해왔으며, 금년에는 ▲한-베 다문화 자녀 현지 한글캠프(7.22~28)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 ▲법률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사할린에서 가장 높은 산은 로파틴산(1609m)으로 티모브스코예와 노글리키 구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이 산은 두 구역의 경계로서 봉우리를 통해 지나간다. 주라블레(1325m)산은 우글레고르스크와 포로나이스크 두 구역이 공유하고 있다.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은 물론 전쟁의 영웅들을 기념하고, 여행을 통해 건강한 생활방식에 관심을 가지며 사할린주의 산들에 새로운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고 고향 사할린과 쿠릴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데 있다. 산 봉우리들을 2년에 걸쳐 등반할 계획이다.

오하 구역에서는 삼형제산(623m), 노글리키 및 티몹스코예 구역에서는 로파티나산(1609m),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구역에서는 로바노브카산(994m), 스미르니흐 구역에서는 오노르산(1327m), 포로나이스크 및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에서는 주라블료브산(1325m), 토마리 구역에 크라스노와산(1093m), 마카로브 구역에는 벨로와야산(1131m), 돌린스크 구역에서는 루다놉스키산(924m), 코르사코브스 구역에서는 푸쉬킨스카야산(1047m), 홈스크 구역에서는 스파베르그산(1021m), 네웰스크 구역의 밤부코와야산(588m), 아니와 구역의 미출라(793m),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체호브산(1045m), 유즈노쿠릴스크구역에서는 짜짜 화산(1819m), 쿠릴스크구역에서는 스토카프 화산(1634

미터), 세웨로쿠릴스크 구역에서는 알라이드 화산(2339m)에 등반할 계획이라고 사할린주 두마 알렉산드르 볼로트니코프 의원이 전했다.

В честь 75-летия Побед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корят все вершины

В 2020 году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75-летие Побед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оведению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празднованию 9 мая Дня Победы и 3 сентября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овместно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дной из туркомпаний Сергеем Василенко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дреналин" Ниной Кассовой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шили не остав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и в 2019-2020 годах провести акцию "Вершины Победы" — восхождение на высочайшие точки каждого из 18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водружением на их вершине знамени Победы.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есть своя вершина, на которую традиционно совершают восхождение жители по определенным датам. Например, 12 июня в честь Дня России горожан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водят восхождение на гору Российскую, а жител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на Сергеевскую. Акцию "Вершины Победы" планируют закончить в сентябре будущего года, а начать её 15 июня этого года с восхождения на гору Краснова (1093 м) находящую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районов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высочайшие точки в каждом из них. Разброс вы-

сот среди вершин велик. Так, высочайшая точка области — вулкан Алайд (2239 м),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острове Атласова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а вот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самой высокой точкой считается гора Три Брата — 623 метра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Гора Лопатина (1609 м), высочайшая вершина Сахалина, является высочайшей точкой и Тымовского, и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ов, так как граница между этими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образованиями проходит через её вершину. Также одну вершину, гору Журавлева (1325 м), на двоих делят Углегорский и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ы.

Главная цель акции — привлечение к здоров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через занятия туризмом, а также разработка нов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на вершины (горы, сопки, вулка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асширение знаний о родном крае —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у и, конечно же,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героев войны.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планируется совершить восхождение на высочайшие точки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 Три Брата (623 м), Ногликском и Тымовском — Лопатина (1609 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 Лобановка (994 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 Онор (1327 м), Поронайском и Углегорском — Журавлева (1325 м), Томаринском — Краснова (1093 м), Макаровском — Беловая (1131 м), Долинском — Рудановского (924 м), Корсаковском — Пушкинская (1047 м), Холмском — Спамберг (1021 м), Невельском — Бамбуковая (588 м), Аниском — пик Мицуля (793 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Чехова (1045 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 вулкан Тятя (1819 м), Курильском — вулкан Стокап (1634 м)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 вулкан Алайд (2339 м), сообщает депутат Александр Болотников.

сahaslinju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EDA.SAKH.COM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БОЛЕЕ 100 ЗАКАЗОВ**
- Нашим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Вам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ПОЧЕМУ С НАМИ УДОБНО?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Заказы запоминаются, их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ПОПРОБУЙТЕ

НА САЙТЕ eda.sakh.com

Десктопная версия

Мобильная версия

ИЩИТЕ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Реклама</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